

고흥군, LP가스 안전관리 강화대책 간담회 개최

안전사고 예방 및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



LP가스 안전관리 강화대책 간담회사진

/고흥군 제공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최근 고흥군 문화회관 세미나실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남동부지사와 공동으로 고흥·보성 지역의 LP가스 판매사업자 대표와 안전관리자 3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 LP가스 공급자 안전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에너지 공급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LP가스 사업자들과 최근 가스사고 현황을 공유하고, 여름철 집중호우와 장마 등 재난 취약 시기에 대비한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남동부지사 관계자가 강사로 나서 ▲최근 가스사고 현황 및 주요 LP가스 사고 사례 분석 ▲여름 행락철 및 우기(장마철) 대비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 대책 ▲최근 개정된 가스안전 관련 법령 및 제도 안내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강종수 기자

보성군, 복합문화공간 '보성 행복마루' 개관

보성군은 최근 군민의 문화·여가·복지 환경의 대전환을 이끌어갈 복합커뮤니티센터 '보성행복마루'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관식에는 김철우 보성군수를 비롯해 문금주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 보성군의회 김경열 의장, 전라남도의회 김재철·이동현 의원, 기관·사회 단체장, 주민 등 1,000여 명이 함께했다.

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군민 인터뷰, 네이밍 선포식, 테이프 커팅, 블링 시구 순으로 진행됐다.

보성군은 이날 네이밍 선포식을 통해 주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와 여가를 즐기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아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이름을 '보성행복마루'로 정했다.

보성군은 '보성행복마루'를 중심으로 군민들의 문화·여가·복지 수요를 충족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강종수 기자

해남군, 비브리오패혈증 예방 당부

해남군은 최근 기온 및 해수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비브리오패혈증 감염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군민들에게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비브리오패혈균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제3급 감염병으로, 주로 해수, 갯벌, 어패류 등 광범위한 연안 해안환경에서 서식하며 특히 해수온도가 18℃ 이상으로 상승하는 시기부터 균 증식이 활발해져 여름철을 중심으로 환자가 발생한다.

감염은 비브리오 균에 오염된 어패류를 날것으로 섭취하거나 충분히 익히지 않고 먹을 경우 발생할 수 있으며, 상처가 있는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해도 감염될 수 있다.

주요 증상은 발열, 오한, 혈압 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이며, 증상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피부 발진, 부종, 수포 등의 피부병변이 동반될 수 있다.

/윤보현 기자

진도대과 활용한 '핫바베큐 랜치피자' 출시

장흥소방서, 제26회 불조심 어린이 마당 참가 학급 모집

진도군의 대표 농산물인 진도 대과가 국내 대표 피자 브랜드인 피자알볼로를 만나 신메뉴로 탄생했다.

피자알볼로는 청정지역인 진도에서 생산된 대과를 활용해 '핫바베큐 랜치피자'라는 신메뉴를 개발해 지난 6월 4일에 출시했다.

'핫바베큐 랜치피자'는 진도대과로 만든 크립소스에 방울토마토, 바비큐 등 다양한 토핑을 올려 완성한 케이(K)-멕시칸 스타일의 피자로 엠지(MZ)세대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이번 신메뉴는 진도대과 특유의 깊고 풍부한 향을 크립소스에 담아 내 소비자들에게 차별화된 풍미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진도대과는 해풍을 맞고 자라 각종 미네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으며, 진한 향과 맛을 자랑하는 진도군의 대표 특산물이다.

/이가영 기자

장흥소방서(서장 문병운)는 어린이들의 안전의식 향상과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제26회 불조심 어린이 마당」에 참가할 관내 초등학교 학급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불조심 어린이 마당은 소방청과 한국화재보험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전국 단위 안전교육 행사로, 초등학교 4학년 또는 5학년 학생들이 화재·자연 재난·생활안전에 관한 기초 지식을 학습하고 안전의식과 위기 대응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참가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 또는 5학년 학급 전원이며, 동일 학교 내 복수 학급 참가도 가능하다. 학급 인원이 10명 미만이면 기준에 따라 학년 통합 참가도 가능하다. 참가 학급에는 어린이 안전 교재 「불조심 길라잡이」가 학생별로 제공되며, 여름방학 기간 자율 학습 후 9월 8일 예선 평가에 참여하게 된다.

/백두연 기자

완도교육지원청 돌봄전담사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연수 개최



완도교육지원청 돌봄전담사 역량강화 연수 사진

/완도군 홍보팀 제공

완도교육지원청(교육장 이철영)은 돌봄전담사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직무 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적응력을 향상하기 위해 6월 12일 관내 초등학교 돌봄전담사 등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6. 돌봄전담사 역량 강화 및 힐링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초등학교 돌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돌봄전담사 간 경험을 공유하여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학교 현장의 안전확보를 위한 완도소방서 연계 '심폐소생술 교육'과, 올바른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성인지 교육, 청렴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업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해양치유 프로그램 체험'이 포함되어 지친 일상을 치유하고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채우는 시간을 보내는 등 내실 있는 연수가 진행되었다.

이철영 교육장은 "이번 연수가 돌

봄전담사들의 심리·정서적 치유와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안정적이고 질 높은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돌봄전담사의 역량 강화와 정서적 회복을 위해 심폐소생술·성인지·청렴 교육과 해양치유 체험 등으로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현장 의견을 공유하며 협력 관계를 다지고 직무 역량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연수는 돌봄전담사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직무 자신감 향상에 도움이 됐다. 이철영 교육장은 돌봄전담사의 심리·정서적 치유와 역량 강화를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완도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안정적이고 질 높은 돌봄 환경 조성에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문수 기자

